

7월 1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늘 군대

■ 본문 말씀: 열왕기하 6:13~17 (7월 1~2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세요.

≡ 1. 찬양

(새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2. 기도

왕이신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하시며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하 6:13~17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3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우리말 성경>

13 그가 명령했습니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 14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에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은밀히 가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15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 말과 전차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17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전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 말과 불 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 본문 이해

아람 왕은 치밀한 작전을 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이 보낸 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불 말과 불 병거(전차)로 엘리사를 지켜 주셨어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본문은 이방 왕의 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 주어요. 아람은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수시로 침략하며 약탈했어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은 매우 두려운 존재였지요. 아람 왕은 은밀한 매복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을 미리 알고 북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은 작전을 펼치려는 곳을 매번 북 이스라엘이 방어하자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람의 신하들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라고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이야기까지 엘리사가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가 머무는 도단성에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전차)를 보냈어요. 엘리사의 종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 주시자 하늘 군대인 불 말과 불 병거(전차)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며,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답니다(고후 5:7).

### ≡ 4. 나눔

1) 엘리사의 종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15~17절)

#### ■ 저학년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17절)

#### ■ 유아·유치

두려워하는 엘리사의 종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 주셨나요?(17절)

#### □ 질문 가이드

엘리사의 종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나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 종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나눠 보세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로 인해 두려워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하늘 군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해요. 이러한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계발되는 재능이 아니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믿음의 힘이 길러진답니다.

2) 나는 두려운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나요? ‘믿음의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 ■ 저학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유아·유치

거울을 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하셔!”라고 말해 보세요.

###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비결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커다란 만족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좌절을 안겨 주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그것만을 좇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 ≡ 5. 감사하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나와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감사드리세요.

## ≡ 6. 기도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눈을 단련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이어 가게 해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